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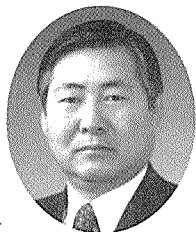
##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 발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결성,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캠페인, 남·북도서관협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회합 등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했던 한 해 였다. 하지만 '저작권법시행령' 개정공표로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문제가 불거지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도서관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 주

### [설문사항]

- ① 귀하께서는 2001년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이규승 회장



① 정보화사업이 계속되면  
서 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자료  
와 더불어 전자정보에 더욱 많이 의  
존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세계 우수의 학술지  
를 웹저널로 대체하는 등 전자정보를 한층 보강  
할 것이며 따라서 이의 이용자수가 증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  
에 재택 이용자 수가 많아질 것이 예측된다.

금년에는 관계자와 단체의 노력으로 학교도서  
관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도서관  
이용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보  
면 초·중등교육은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실적으  
로 우리나라의 학교 도서관 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② 정부조직법과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면  
서 대학의 규모에 따라 도서관의 조직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나 우리 협의회는 도서관자료의 증  
가와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  
스 패턴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  
력증원과 도서관 조직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  
주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의 정보수용능력  
과 자기 계발을 위한 도서관 정보학·학술세미  
나를 2회 개최하고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간의 상호대차를 강화하여 교육  
과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확장할 것이  
며,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하  
여 국·사립을 망라한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체  
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대학종합평가의 평가항목 중 도서관 관련 항목  
의 평가비중을 상향시키기 위한 평가지표를 한

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년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김종찬 회장

①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도서관은 2001년도 교육부의 각 대학 서지목록DB 구축사업의 재정 지원으로 인하여 정보화 및 지역주민 정보제공의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을 통한 정보 활동의 개방과 각 대학의 능동적 대처로 인한 지역주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 개방하여 지역 대학은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및 역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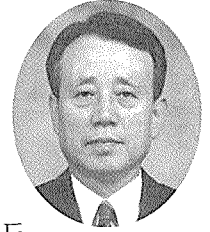
또한 대학도서관도 학생만을 위한 봉사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으로 접목되어질 것이다.

도서관의 직무 구조형태는 실무형 사서들의 관리책임자가 많이 확대 배출되어 적극적 정보 제공, 서지봉사 등 정보 해결사로서의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며 기술적인 변화로는 컴퓨터를 통한 지역네트워킹, 원거리 커뮤니케이션 등의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실용화되리라 본다.

② 2001년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회원교의 보다 많은 가입유치' '회지 발간' '세미나 개최' '새 홈페이지의 홍보 및 이용확대' '지역 회원교 간의 보다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를 통하여 회원교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로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한성택 회장



① 신세기의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큰 기대와 포부를 안고 맞이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도서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보가 모든 분야의 핵심이 되는 후기 산업사회는 도서관의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어질 것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만큼 필연적으로 발전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본 2001년도의 우리 도서관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어려운 현 여건과 도서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 대외적 환경이 아직은 불리함으로 현안문제점 조차 개선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우리 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는 전년도에 이어서 첫째, 현장의 요구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사서직을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교육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개편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문대학 교육목표인 전문직업인 양성에 적합한 교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중 사서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사항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전체 도서관계의 각종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재

교육의 일환으로 심화과정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서경은 회장



①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출범으로 특히 학교도서관계는 학교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조정2과에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가 포함됨으로써, 각 시도 교육청에도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장학진의 배치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학교도서관 운영 연구학교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전망이다.

② 지방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에 (가칭) '부산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를 창립하여 부산시 교육청에 교과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방학 중 연수를 지원하고, 경기지역 학교도서관 협의회와 함께 파견사서들에게 업무지원과 방학 중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서교사들과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들의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윤영대 회장



① 2001년의 우리 도서관계는 디지털도서관의 환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모든 도서관들이 초고속망을 통하여 손쉽게 도서관정보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PC통신망을 통하여 전국도서관 소장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문헌정보유통의 신속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작년 대통령께 문화관광부장관이 보고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 계획」에 따른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필요성의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정보화 관련 DB 구축사업으로 일자리가 대량 창출될 것이며, 학교도서관 및 문고 정보화 사업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소장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과 아울러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제도 등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② 첫째는 본 학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학술상 제도를 시행(매년 6월)하게 된다. 본 학회 회원 중에서 그 동안 제출한 논문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학술상을 시상할 것이다. 교수와 사서 등 연구자들에게 연구의욕을 북돋아 주어, 양질의 논문을 쓰게 하고, 나아가 도서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는 학회지의 충실화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현재 31권 4호(2000.12)까지 발행되었다. 그 동안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진흥재단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 학회의 「학술상」 제도를 계기로 논문투고 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논문심사를 강화하여 명실공히 우수학술지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할 것이다.

그 외 춘계 워크샵, 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라운드 테이블, 동계학술발표회 등 각종 학술 행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주제의 논문 발표로 내실을 기하고, 도서관계와 학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 것이다.

현재 개인 회원 450여명, 단체회원 170여 기관으로 620여 회원을 가진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사서들에게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대학,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게 그 동안의 활동을 홍보하여 회원배가 운동을 펼 것이다. 그리하여 학계와 현장이 연계하는 장으로서의 학회가 되게 할 것이다.

## 부산도서관연구회

### 신민주 회장



① 2001년은 부산시 공공도서관에 있어서는 뜻깊은 해이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 일본의 독서회인 흥도회를 전신으로 1901년 개관한 후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벽두에 시작해서 일제시대와 6.25를 겪는 등 수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부산공공도서관의 역사도 여물어 왔다. 1978년까지 1개관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 17개의 도서관으로 늘어나 각 지역별로 주민의 컴퓨터 자리잡고 있으며, 도서관의 연구회도 발족한지 8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정보시대에 걸맞는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 모든 도서관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힘찬 행보로 새해를 열었다.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정보육구

를 충족키 위해 2003년까지 인터넷을 통해 전국 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화종합계획”을 진행 추진중이며 또한 남·북도서관협회 대표단이 일본에서 역사적 화합을 하고,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가 결성되었으며,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IFLA총회가 개최되는 등 여러 면에서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은 시대와 정보매체의 변화로 지식정보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전 세계는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와 e-book 출판의 확산으로 출판계의 변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도서관 봉사 형태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사서의 계획적인 재교육의 필요성으로 부산도서관연구회에서는 매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홈페이지 관리, 정보검색과정 등을 전 사서에게 교육하기도 하였다.

또한 21세기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부산공공도서관들은 각 도서관마다 주제별 특성화 도서관을 지정하여 공공도서관의 보편성을 위해 특화된 정보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봉사하여 명실상부한 정보화사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올 한해도 부산도서관연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자기연찬과 정보화 경영 마인드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 경기도사서연구회

### 김지봉 회장

① 작년 2월초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도서관 정보화 추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어

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총정원제로 신규 사서직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위탁 관리의 추진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낙후성 등으로 올해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서관계의 불확실성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로 인하여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001년도 도서관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② 창립 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경기도사서연구회는 올해도 예년처럼 세미나 개최 2회, 연구회지 발간 2회를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특히 도서관인으로서 전문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일본 공공도서관 연수를 6월 중에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중앙도서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근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사서연구회가 지역 도서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김영란 회장

①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에서는 첫째, 올해 초에 독서교실 교재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올 여름독서교실 실시 이전에 개정 작업

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둘째는 사도회지 제6집(격년 발행)이 발행되는 해로 행정, 봉사, 정리, 전산, 서지분과별 분과논문과 각도서관별 개인 논문을 수록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초에 정기총회 및 사도회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박미영 회장

① 지난 해 일본도서관협회 제8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남북 도서관계가 처음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바 이를 계기로 올 한해는 남북한 도서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민족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라 올 한 해 본격적으로 공공도서관등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국가내 각종 도서 및 문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짐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도서관과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되기를 기대해본다.

② 지난 한 해 친선도모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바람으로 협의회내 처음으로 홍보, 학술, 봉사분과를 두어 사업을 시작했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많은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지역단체를 방문해 도서정리와 열람지도안내, 지역전문가를 초청하여 회원연수를 갖는 등 몇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

난해 사업들을 초석으로 해서 올 한해도 우리 사서협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도약하는 한 해로 삼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이나 사서들이 주는 영향력이나 호소력을 한껏 펼칠 계획이다.

## 강원도도서관연구회

황혁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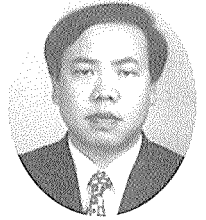


① 지금 우리는 '문화의 세기'이며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는 21세기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금년도에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문화국가로, 충실한 지식과 정보능력을 갖춘 나라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리라 본다.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새로운 21세기는 지식기반 확충과 정보화가 국가발전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서관 발전과 육성진흥에 노력할 것이다.

② 대부분의 단체가 기본적으로 그 활동의 패러다임이 유사한 만큼, 강원도도서관연구회도 전년도에 준한 기본적인 틀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창립 3주년의 유아기적 단체로서 회원의 유대 강화를 위한 친목행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정보능력 향상을 꾀하고, 친절한 봉사 위한 회원 연수회를 개최하여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이종문 회장



① 정부는 「지식경제강국 구축」을 올해 국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보화를 기반으로한 지식경제 강국 구축을 위한 과제들이 올해부터 실천되면서 지식정보의 핵심기관인 도서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정보 축적, 서비스 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정보화사회를 이끄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권의 공적사용, 도서관의 명칭 및 기능변경, 사서자격증제도, 학교도서관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는 크고작은 일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라기는 이러한 논의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져서 올해에는 도서관계가 도약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② 우리 포럼은 2001년을 도약의 해로 정하고 다음의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정보통신교육원을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올 상반기 중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 교육원은 최신 기종의 컴퓨터시스템과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여 실습 중심의 정보화교육 실시하게 된다.

둘째, 올해로 창간 6주년을 맞이하는 「계간 디지털도서관」의 판형을 16절판형으로 변경 발행한다. 이는 판형을 변경해달라는 그동안의 구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구독자들이 지적해온 관리 및 보관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1996년부터 발행해온 디지털도서관지 전문(Full-text)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상에서 전문 서비스도 올 상반기부터 실시하게 된다.

셋째,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원격대학교 설립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올해부터는 학회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학회로 결정된 학회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재정적 후원을 실시하게 되며, 각 학회나 단체들이 희망할 경우 웹호스팅 서비스를 무료로 하게 된다. 무료로 웹호스팅을 희망하는 학회, 단체는 우리 포럼으로 문의하면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기존의 사업들의 질적인 개선으로 올 한해가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설문은 공공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운동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서울시도서관연구회,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 광주사우회, 광주빛고을사서회, 충청남도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전남공공서관연구회, 경상북도사서연구회, 경남공공도서관협의회, 제주도서관연구회, 한국첨자도서관협의회(총 25개 단체) 등에도 보냈으나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 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